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삽입어 특성에 관한 연구

남 현 옥*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사과정

안 종 복

춘해대학 유아특수치료교육과

권 도 하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삽입어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삽입어 특성은 소풍, 여행, TV 프로그램 등의 주제에 관해 1분 동안의 독백에서 나타난 비율, 언어학적 단위, 언어학적 길이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5-12세의 말더듬 아동 11명(남자 8명, 여자 3명)과 17-32세의 말더듬 성인 11명(남자 7명, 여자 4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삽입어 비율은 말더듬 성인과 아동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말더듬 성인들이 말더듬 아동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둘째, 언어학적 단위에 대한 말더듬 아동과 성인 간의 비교에서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언어학적 단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음절이 모음, 어절, 구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언어학적 길이에 대한 말더듬 아동과 성인 간의 비교에서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언어학적 길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음절이 2, 3, 4, 5 음절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제어 : 삽입어, 말더듬 아동 및 성인, 비율, 언어학적 단위 및 길이

1. 서 론

1. 연구의 의의

우리는 의사소통 시에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말을 시작할 때나 도중에 발화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어”, “뭐”, “이제”, “그 다음에” 등을 발화

* 제1저자, 교신저자(32m-star@hanmail.net)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독립적인 음절이나 어휘들을 ‘삽입어(interjection)’라고 한다. 즉, 삽입어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면서 자신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발화 과정에 나타나는 독립적인 음절이나 어휘들로, 언어학적 측면의 연구들에서는 서구에서 사용하는 ‘담화표지(discourse maker)’라는 용어와 동일한 개념이며(김향화, 2001; 강우원, 2002), 구문 구조와는 무관하게 끼어든다는 점에서 ‘간투사’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오승신, 1997). 또한, 구어 담화 상황에서 잉여적으로 사용되는 주변적인 언어표현으로 화자 개인적인 언어 습관일 수 있는 구어자질이기에 때문에 화자 개별적인 특성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화자의 개인적인 말버릇에 그치지 않고 언어 사회에 통용되어 어느 정도 스타일상으로 굳어진 화용상의 필수 요소로 보아 ‘화용표지’라고도 불려진다(구지민, 2005). 담화표지는 화자가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는 양상표지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자기의 담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자의 담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담화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김태엽, 2000). 이러한 담화표지는 대부분의 감탄사, 접속부사, 보조사 및 억양, 강세, 쉼 등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출현빈도가 높고 사용층 또한 광범위하다(김향화, 2004).

Ryan(1974)은 비유창성의 형태를 삽입, 수정, 미완성 구, 구의 반복, 쉼 등의 정상적인 비유창성(nonfluency)과 단어 전체 반복, 단어 부분 반복, 연장, 투쟁 등의 병리적인 비유창성(dysfluency)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의 삽입어는 정상적인 비유창성의 형태 중 하나인 ‘삽입’과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유창성은 발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구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삽입, 수정, 반복 등을 나타낸다. 특히, 정상적인 비유창성과 병리적인 비유창성은 정상 아동과 말더듬 아동 모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유창성의 형태 분석을 통하여 정상적인 것인지 말더듬으로 진행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전희숙, 권도하, 1998; 이강현, 권도하, 2004).

삽입어와 관련된 언어치료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비유창성 형태 분석 시에 나타나는 삽입의 빈도를 분석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신문자(1996)는 3~29세의 말더듬인을 대상으로 한 유창성장애의 특성 연구에서 유창성장애의 유형을 주저, 삽입, 수정, 미완성 단어, 반복, 연장, 막힘의 7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삽입을 의미 전달 내용에 관계없이 말이 덧붙여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그러니까, 글썽” 등 전체 단어를 적절하지 않게 끼워 넣는 단어 삽입, “음, 에, 아” 등 불필요한 음절을 끼워 넣는 음절 삽입, 말의 시작이나 중간에 /어/ 소리와 같은 중모음을 삽입하는 중모음 삽입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유창성장애 유형 중에서 반복, 연장, 막힘, 삽입이 주된 형태이고, 삽입 중에는 단어 삽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전희숙과 권도하(1998)는 말더듬 아동과 유창한 아동의 구문 특성 비교에서 유창한 아동들은 정상적인 비유창성을 많이 나타냈으며, 말더듬 아동들은 병리적인 비유창성을 나타냈는데, 그 중 정상적인 비유창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삽입과 수정이 다른 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비유창성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강현과 권도하(2004)의 학령기 아동의 비유창성 유형과 구어속도에 관한 연구는 아동들로부터 가장 많이 관찰된 비유창성 유형이 삽입어로 전체 비유창성의 34.04%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6세 이전에 빈번하게 관찰된 비유창성 형태들 중에서 쉽이나 단어 전체 반복은 점차 감소하고 수정, 삽입, 단어 부분 반복, 미완성 구 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정상 성인의 비유창성 특징과 말 속도에 관한 연구에서, 정상 성인 화자는 말하기와 읽기의 두 상황 모두에서 삽입, 수정, 미완성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내었다(심홍임, 2004). 신명선 등(2005)은 정상 아동 및 성인의 혼자말하기에서 비유창성의 형태 중 삽입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정상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혼자말하기에서의 비율, 언어학적 단위,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정상 아동과 성인은 삽입어의 비율, 언어학적 단위 및 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언어학적 단위에서는 모음과 음절이 어절과 구에 비해 많이 나타났고, 언어학적 길이에서는 1음절 삽입어가 2, 3, 4, 5음절 삽입어보다 높게 나타났다(남현옥 외, 2005).

이처럼 말더듬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화자들은 구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서 삽입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이러한 삽입어는 화자에 따라 비율, 형태, 길이, 단위, 기능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Kamhi(2003)는 말더듬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돌려말하기(circumlocution), 쉽(pausing), 삽입어 등과 같은 보상적인 의사소통 전략(compensatory communication strategies)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반드시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피나 공포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면 이러한 보상 전략들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말더듬인들의 삽입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비유창성 형태 중에서 삽입의 빈도에만 초점을 둔 것이며, 언어적 능력이 다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삽입어의 언어학적 단위 및 길이에 대한 비교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말더듬인의 의사소통 전략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말더듬인들을 대상으로 말더듬인의 삽입어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독백에서 나타난 삽입어에 대해 비율과 언어학적 단위 및 길이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삽입어 특성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언어치료사들이 말더듬인들의 의사소통 특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삽입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말더듬 아동과 말더듬 성인은 삽입어 비율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 2) 말더듬 아동과 말더듬 성인은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 3) 말더듬 아동과 말더듬 성인은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5~12세의 말더듬 아동 11명(남자 8명, 여자 3명)과 17~32세의 말더듬 성인 11명(남자 7명, 여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담당 언어치료사 및 연구자들로부터 말더듬으로 진단 받았으며, 조음기관의 기질적 및 기능적인 장애가 없고, 지능, 음성, 언어, 청력, 신경학적 장애 등의 병력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절차

1) 실험 설계

각 대상자에게 소풍, 여행, TV 프로그램 중 한 가지에 대하여 1분 이상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1분 이상 주제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화 수집 전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만약, 피험자의 발화가 1분을 초과하면 스스로 마칠 때까지 계속 발화하도록 하였고, 1분 이전에 말을 끝낼 경우 연구자가 단서(prompt)를 주어 충분한 발화를 유도하였다.

2) 실험 도구

각 대상자의 모든 발화를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발화에 걸린 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초시계를 이용하였다. 녹화된 모든 발화를 재생하여 발화 내용을 전사하였다.

3) 삽입어 분석

본 연구는 남현욱 등(2005)의 정상 아동 및 성인의 삽입어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삽입어의 개념은 언어치료 분야의 정상적인 비유창성 형태 중 하나인 '삽입'과 언어학적 측면의 '간투사'와 동일한 것으로, 발화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피

험자들이 산출한 음, 단어, 어절, 구 등을 의미한다. 1분 이상의 독백에서 발화의 시작부터 1분까지를 기본 측정 시간으로 하였다.

삼입어의 비율에 대한 분석은 “음-, 음- 나는...” 등과 같이 반복한 것은 물론 1분 동안에 각 피험자가 발화한 모든 삼입어를 각각 계수하여 전체 발화한 단어 수에 대한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의 개념은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어절로 하였다. 또한, 언어학적 단위는 삼입어를 모음, 음절, 어절, 구로 나누어 전체 발화한 삼입어 수에 대한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언어학적 길이는 삼입어를 음절 수 별로 나누어 전체 발화한 삼입어 수에 대한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4) 신뢰도 분석

삼입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 1저자와 제 2저자가 각 3명씩의 아동과 성인 피험자의 발화를 임의로 선택하여 평가하였다. 연구자 간의 신뢰도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text{연구자 간 신뢰도(\%)} = \frac{\text{일치한 삼입어의 수}}{\text{발화에서 나타난 삼입어의 총 수}} \times 100$$

이에 따른 연구자 간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5) 통계 처리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삼입어 비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언어학적 단위와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삼입어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95%로 검정하였다.

III. 결 과

1. 삼입어 비율의 특성

삼입어 비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말더듬 성인 집단에서 말더듬 아동 집단보다 삼입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 삽입어 비율에 대한 비교

집단 유형	N	M(%)	SD	t
아 동	11	5.93	4.45	-4.61***
성 인	11	16.34	6.02	

*** p <.001

2.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 비율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음절의 비율이 모음, 어절, 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유형	언어학적 단위	N	M(%)	SD
아 동	모음	11	25.00	34.36
	음절	11	56.06	44.89
	어절	11	18.94	35.76
	구	11	0	0
성 인	모음	11	24.84	22.06
	음절	11	51.86	17.62
	어절	11	18.13	18.54
	구	11	5.16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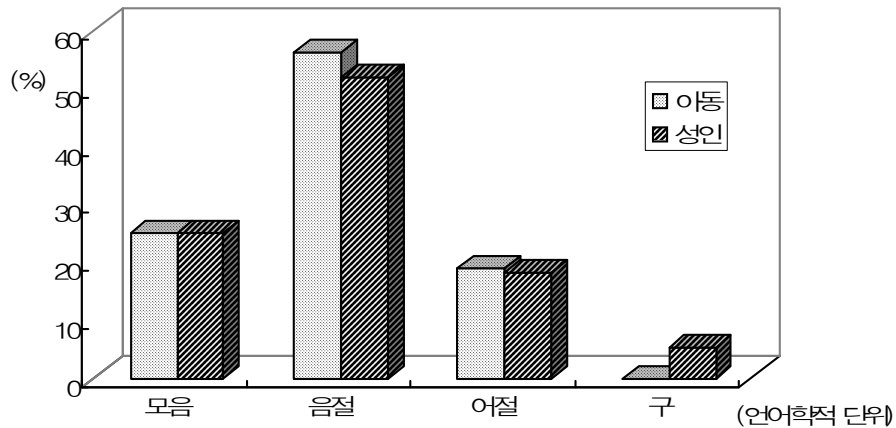


그림 1.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의 비율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언어학적 단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집단과 단위 간에 상호작용은 있었다. 언어학적 단위별 평균값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절은 모음, 어절, 구 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1$), 모음, 어절, 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 비율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요 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집 단	4.091E-05	1	4.091E-05	0
단 위	30426.510	3	10142.170	14.310***
집단 * 단위	247.338	3	82.446	.116
오 차	56700.335	80	708.754	
합 계	142370.2	88		

*** $p < .001$

3.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 비율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1음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 다음은 2음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유형	언어학적 길이	N	M(%)	SD
아 동	1음절	11	81.06	35.76
	2음절	11	14.39	30.75
	3음절	11	0	0
	4음절	11	4.55	15.08
	5음절	11	0	0
성 인	1음절	11	76.70	22.59
	2음절	11	15.99	16.90
	3음절	11	2.14	5.44
	4음절	11	4.12	6.67
	5음절	11	1.04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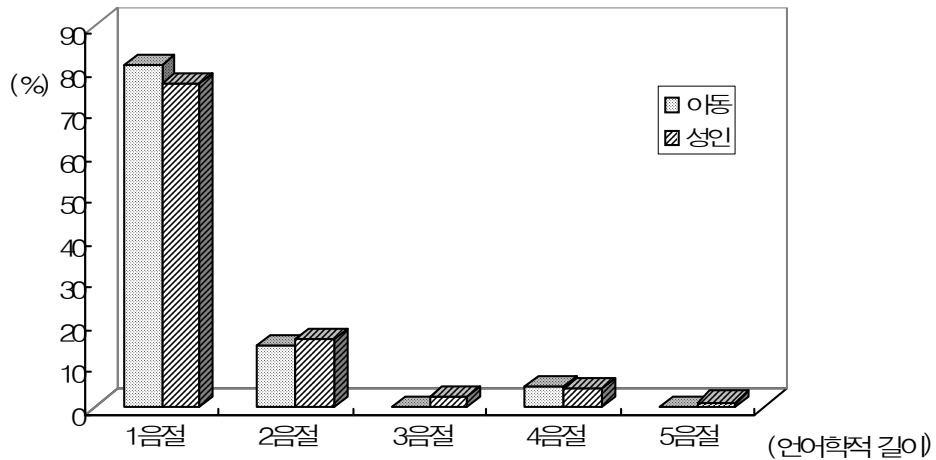


그림 2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의 비율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 비율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언어학적 길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집단과 길이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언어학적 길이별 평균값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음절은 나머지 모든 음절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1$), 2, 3, 4, 5음절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 비율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 단	3.273E-05	1	3.273E-05	0
길 이	98416.698	4	24604.174	73.942***
집단 * 길이	150.620	4	37.655	.113
오 차	33274.788	100	332.748	
합 계	175839.7	110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말더듬 아동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독백에서 나타난 삽입어를 비율과 언어학적 단위 및 길이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말더듬인들의 삽입어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삽입어의 비율은 말더듬 성인 집단이 말더듬 아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상 아동 및 성인 집단 간의 삽입어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남현욱 등(2005)의 연구 결과와 아동들은 삽입어의 형식적인 특성과 의사소통 기능을 이미 습득하여 성인과 유사한 삽입어의 사용과 기능을 나타낸다는 Meng과 Schrabback(1999)의 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말더듬 아동들이 말더듬 성인들보다 삽입어를 더 적게 사용하는 이유는 말더듬 아동들이 1분 동안 혼자 말하는 능력의 부족하여 검사자가 발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서를 자주 제시하였고, 그 단서를 이용한 발화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정상 아동의 삽입어 비율에 대한 남현욱 등(2005)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말더듬 아동들은 정상 아동에 비해 삽입어를 적게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말더듬 아동과 유창한 아동의 비유창성 형태별 발생 빈도에서 삽입의 비율이 말더듬 아동은 19.73%, 유창한 아동은 47.65%로 나타났다는 전희숙과 권도하(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말더듬 아동은 병리적인 비유창성의 형태를 더 많이 나타내고, 정상 아동들은 정상적인 비유창성 형태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은 말더듬 아동과 성인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언어학적 단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언어학적 단위 별로 분석한 결과, 음절은 모음, 어절, 구 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모음, 어절, 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가한 말더듬 아동들은 “음”을, 말더듬 성인들이 “그”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말더듬 아동과 성인들이 단어 삽입, 음절 삽입, 중모음 삽입 중 본 연구의 어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글썄”와 같은 단어 삽입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는 신문자(1996)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정상 아동과 성인들은 언어학적으로 단위가 작고 발화하기 쉬운 “어-, 아-”와 같은 모음이나 “음-, 또-”와 같은 음절을 삽입어로 많이 사용한다는 남현욱 등(2005)의 선행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에서 말더듬 아동과 성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언어학적 길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언어학적 길이 별로 분석한 결과, 1음절이 나머지 음절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아동 및 성인들의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남현욱 외, 2005)과 동일한 결과이며, 간투사는 한 두 개 정도의 음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고 한국어에는 “음-”, “글썸-” 등이 많이 나타난다는 전제희(200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말더듬인들도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발화하기 간편하고 회상하는데 좀 더 집중하기 위해 1음절을 삽입어로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말더듬 아동 및 성인들의 삽입어 특성을 비율, 언어학적 단위 및 길이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삽입어의 비율은 말더듬 성인 집단이 말더듬 아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은 말더듬 아동과 성인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언어학적 단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언어학적 단위 별로 분석한 결과, 음절은 모음, 어절, 구 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모음, 어절, 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삽입어의 특성에서 말더듬 아동과 성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언어학적 길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언어학적 길이 별로 분석한 결과, 1음절이 나머지 음절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론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삽입어 특성을 비율과 언어학적 단위 및 길이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삽입어와 관련된 언어학적 연구들 중에서 오승신(1997)은 담화 상에서 삽입어가 담화의 시작 및 마감 의도 표시, 발화의 수정 표시, 발언권의 유지 표시 등과 같은 담화의 보조 기능을 하며, 같은 형태라 할지라도 대화에서의 위치와 맥락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어학적 기능과 위치의 측면에서도 삽입어의 특성을 분석한다면 말더듬인의 삽입어 사용 목적 및 의사소통 전략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검사 과업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여 혼자서 말하는 독백 상황이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Fuller(2003)는 담화 표지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인터뷰와 대화의 두 가지 상황 중 “oh”와 “well”를 대화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인터뷰에서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심홍임(2004)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정상 성인들이 말하기 상황에서 읽기 상황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유창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시각적인 단서가 있는 읽기 상황보다 과거의 일을 설명하는 말하기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읽기의 경우 삽입보다 수정이 가장 많은 비유창성으로 나타난 것은 말

하기와는 달리 시각적인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삽입이 적게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독백 상황뿐만 아니라 읽기, 전화, 대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삽입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정상 아동 및 성인의 삽입어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남현옥 외, 2005)와 비교하기에는 말더듬 대상자의 수가 부족하고, 검사 과업의 주제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말더듬인과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삽입어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말더듬인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삽입어의 특성은 특히 비율의 측면에서 말더듬의 심한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말더듬의 심한 정도에 따른 삽입어의 후속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우원(2002). 담화표지 ‘아’와 ‘어’의 특성 비교 연구. *우리말 연구*, 22, 241-257.
- 구지민(2005). 학문 목적 한국어를 위한 강의 담화표지 학습 연구. *한국어 교육*, 16(1), 23-43.
- 김태엽(2000). 국어 담화표지의 유형과 담화표지되기. *우리말글*, 19, 1-23.
- 김향화(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 113-140.
- 김향화(2004). 담화표지의 식별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 9-14.
- 남현옥, 안중복, 신명선, 권도하(2005). 정상 아동 및 성인의 삽입어(interjection)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언어치료학회지*, 1(1), 1-11.
- 신명선, 안중복, 남현옥, 권도하(2005). 혼자말하기에서 정상 아동 및 성인의 비유창성 특성에 관한 연구. *제16차 한국음성과학회(KASS)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51-259.
- 신문자(1996). 유창성장애의 특성 연구. *말-언어장애*, 1, 82-103.
- 심홍임(2004). 정상 성인의 비유창성 특징과 말 속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 오승신(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말*, 22, 53-86.
- 이강현, 권도하(2004). 학령기 아동의 비유창성 유형과 구어속도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1), 79-88.
- 전희숙, 권도하(1998). 말더듬 아동과 유창한 아동의 구문 특성 비교. *언어치료연구*, 7(1), 129-147.
- 진제희(2003). 사회언어학적 및 전략적 말하기 능력배양을 위한 담화분석 방법의 적용. *한국어 교육*, 14(1), 299-321.
- Fuller, F. M.(2003). The influence of speaker roles on discourse marker use. *Journal of Pragmatics*, 35, 23-45.
- Kamhi, A. G.(2003). Two paradoxes in stuttering treatment.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8, 187-196.
- Meng, K. & Schrabback, S.(1999). Interjections in adult-child discourse: The cases of German HM and NA. *Journal of Pragmatics*, 31, 1263-1287.
- Ryan, B. P.(1974). *Programed therapy for stuttering in children and adults*. Springfield: Chartes C Thomas Publishers.

A Study of Interjection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nd Adults Who Stutter

Nam, Hyun-Wook

Doctoral student,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Ahn, Jong-Bok

Professor, Dept of Special Therapeutic Education for Children, Choonhae Collage

Kwon, Do-Ha

Professor,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jection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nd adults who stutter. The interjectional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through the ratio, the linguistic unit, and the length in monologue about picnic, travel and TV program for a minute. Eleven stuttering children(8 males, 3 females), from 5 to 12 years old, and eleven stuttering adults(15 males, 17 females), from 17 to 32 years old,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uttering children and adults groups in the interjectional ratio, and interjectional ratio in adults who stutter indicat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ne in children who stutter. Second, in terms of linguistic uni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linguistic units, and syllable interjec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vowel, clutter and phrase interjections. Finally, in the linguistic leng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linguistic lengths, and one-syllable interje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wo, three, four and five-syllable interjections.

Key words: Interjection, Children and adults who stutter, Ratio, Linguistic units and lengths

논문 접수: 2005. 11. 9

심사 시작: 2005. 11. 10

게재 확정: 2006. 3. 23